

화폭에 구현된 '다선일미' 한 획

김창배 화백 6월 18~21일 대구서 전시

“용과 봉을 잡도 그려 동글고도 아름다워/ 만금을 허비하여 온갖 떡차 만들었네/ 누가 알라 스스로 풍요로운 잠밭갈 잠향인 줄/ 한번 물들고 나면 잠성품 잃어버리네.” (동다송)

“한국의 다성(茶聖)”으로 일컬어지는 초의 선사와 차를 지극히 사랑했던 추사 김정희는 “차 마시면 일어나고 술 마시면 망한다(飲茶興 飲酒亡)”는 말을 남겼을 정도로 차의 정신적인 효용을 강조했다.

특히 초의 선사(1786~1866)는 41세 때 두류산 대흥사 인근에 일지암을 지어 81세로 입적할 때까지 차와 벗하며 <다선전(茶神傳)>과 <동다송(東茶頌)>을 저술하는 등 다선일미(茶禪一如)의 사상을 주창하며 조선 초 말 쇠퇴기의 차를 되살려 내어 한국 차의 흥흥조로 평가받고 있다.

<다선전>에는 차의 채취, 차를 만드는 법, 차의 품질 식별, 차를 보관하는 법, 끓이는 법, 차를 마시는 법, 차관을 차이에 넣는 법 등 차의 전반적인 이론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다선전>에 이어 10년 후 저술한 <동다송>에는 차에 관한 신이한 전설은 물론 우리나라 차가 색향기미(色香氣味)에 있어서 결코 중국차에 뒤지지 않음을 찬탄하는 시로 가득 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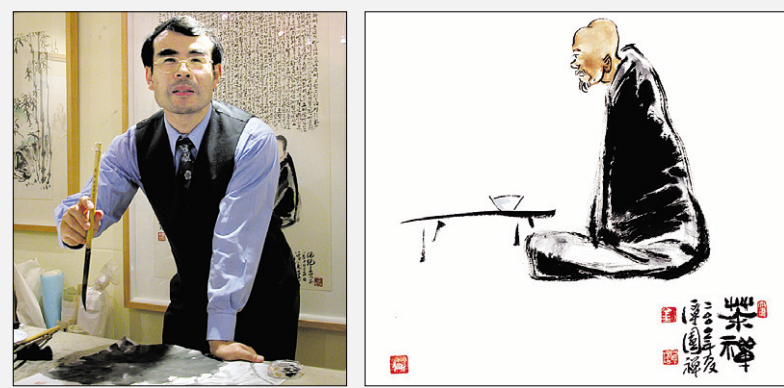
이처럼 우리나라 다도(茶道)를 정립한 초의 선사의 명저인 <다선전>과 <동다송>을

그림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책이 나와 화제다. 담원 김창배 화백의 차묵화(茶墨畵) 400여 점이 수록된 이 책은 영어와 일본어로도 번역돼 정통 한국화와 다(茶)문화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창배 화백은 6월 3~7일 삼성동 코엑스 국제차문화대전 특별전시부스에서 출판기념 전시회도 개최해 호평을 얻었다. 김 화백은 6월 18~21일 대구전시컨벤션센터 엑스코 1층에서 열리는 대구 세계차문화축제에서도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 화백은 “한국 선차(禪茶)의 유구한 전통과 수행전통을 <동다송>과 <다선전>을 통해 그림으로 드러내고 싶었다”면서 “선과 다도가 둘이 아닌 다선일미(茶禪一味)의 정신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화백은 정보통신부 연하엽서 작가로 세 번 선정돼 ‘차(茶)가 있는 풍경’을 그리는 등 다도(茶道) 풍경을 그리며 우리나라 차문화 보급에 앞장서 온 화가이자, 다인, 작가이다. 근현대 인물화의 대가인 금추 이남호(1908~2001) 선생의 제자인 김 화백은 추계예술대와 예원예술대학 동국대 대학원에서 미술을 전공했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차와 회화, 차 문화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해 온 그는 화문집 <차 한잔의 풍



김창배 화백과 그의 다묵화 '다선' (위), '차 한잔의 여유' (아래).



경> <차 한잔의 인연> <차 한잔의 명상>과 차묵화집, 차문화 화필기행과 <한국의 달마, 2> 등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미술, 고려대 교육대학원, 부산여대, 군포시청, 김해시청에서 제자를 양성하고 있다. (02)736-7445 김성우 기자

다서화와 차도구의 모든 것

이병인 교수 등 '한국의 다서화' '한국의 차도구' 펴내

우리 나라의 다서화(茶書畵)와 차도구에 대한 종합 연구서가 나왔다.

한재다회(寒齋茶會) 지도교수인 이병인 부산대 교수와 한재다회 고문인 이경영 동국대 교수와 이상혁 호서대 교수는 공동으로 <한국의 다서화> <한국의 차도구>(신라문화원)를 나란히 펴냈다.



이병인 교수.



<한국의 차도구> <한국의 다서화> 표지.

<한국의 다서화>에는 다서화의 정의와 종류, 특성에 대한 분석 등 기초지식을 설명하고 조선, 근대, 현대의 다서화를 시대별 인물별로 작품과 함께 해설했다. 아울러 저자가 소장한 다서화에 대한 인연담과 사상적 배경, 감상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에서 이병인 교수는 “다서화란 차를 마시는 공간인 다실(茶室)에 거는 글씨(茶書)와 그림(茶畵)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우리 전통 다서화에 대한 고찰과 다인들이 주로 활용하는 글씨와 그림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다서화 작가들에 대한 인물평과 작품 소개를 시도했다.

한편, <한국의 차도구>는 저자가 70년대 후반부터 차를 즐기며 전문가의 도예가들을 찾아다니고 고민과 노력의 결과물이다. 다관(茶罐)과 찻사발(茶沙鉢)을 중심으로 차도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내용, 주요 차도구 도예가들을 소개하고 그동안 애용해 온 차도구를 ‘내 마음의 차도구’란 주제아래 정리했다. (054)774-1950 김성우 기자

갖가지 도장 매력 발산

수안 스님 전각 작품 모은 '수안인보집'

30여 년 간 천진난만한 아이들과 자연을 화폭에 담아 선심(禪心)을 전한 수안 스님(69·문수원 주석)이 그동안 발표한 300여 점의 전각 작품을 모은 인보(印譜), 여러 가지 도장을 찍은 행적을 모은 책집을 최근 펴냈다.

<수안인보집>(문수원 펴냄)에는 <반야심경> 전각 2필과 경봉·서용 스님 등이 사용한 낙관과 인불부처님 전각, 선구(禪句) 등을 200여 쪽 분량으로 실었다. 국내 스님이 인보를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안 스님은 “시와 글, 그림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전각까지 하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라면서 “전각은 예술의 최종 단계로 한국 불교미술사에서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5월 13~26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선화전을 가진 바 있는 수안 스님은 하반기에 독일에서도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성우 기자

'미안마의 삶 그리고 마음' 특별전

한국불교미술박물관 8월 30일까지

서울 한국불교미술박물관(관대성)은 5월 27일~8월 30일 기획전시실에서 '미안마의 삶 그리고 마음'을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한다.

특별전에는 미안마의 불상, 경전, 불단 장식물 등의 각종 불교 미술품과 함(盒), 전통악기 등의 민속품 40여 점이 선보인다. 불교가 생활 그 자체로 발전해 수많은 불교사원이 세워지고 생활용품 곳곳에서 불교를 찾아볼 수 있는 미안마인들의 간절한 염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관대성 관장은 “박물관은 지금껏

잘 알려지지 않은 동남아시아의 독특한 불교 미술을 알리고자 2007년부터 '불교의 나라 특별전'을 열고 있다”며 “이번 전시는 현재와 내세의 삶에서 고통이 없는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미안마인들의 간절한 염원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주 금·토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에 전시 설명회가 열린다. 관람료는 성인 5000원, 학생 3000원. (02)766-6000 김성우 기자

미안마 불전도



사찰음식 초대전 열려

거제 금강사, 6월 14일

거제 금강사주지 성원은 거제사대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사찰음식 및 세계 각국 음식 초대전'을 6월 14일 오전 10시 30분 개최한다.

한국 전통문화 이해를 돕기 위한 이날 행사에는 비구니스님들이 직접 만든 60여 가지의 사찰음식과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30여 개국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직접 준비한 세계 각국의 음식이 선보이며 테너, 풍물패 초청 음악 공연도 함께 마련된다.

행사에 참가한 사람 모두에게는 전통 사찰음식이 점심으로 제공되고 세계 각국 음식전에서 음식을 선보인 다문화가족 중 우수자를 선발해 시상식도 개최한다.

금강사 주지 성원스님은 “음식을 통한 문화 교류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확산과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055)636-8634 김성우 기자

운달 돈 해에 소장하시면 좋습니다.

액운을 소멸시켜주는 금동반야심경

금동반야심경을 소장하시면...

황금색은 재앙을 막아주고 기운을 모아주기 때문에 예로부터 가정에 금송아지나 금두꺼비를 소장하는 유래가 생겼다고 합니다. 금동 반야심경은 사람의 기를 북돋워 주는 것은 물론 모든 액운을 소멸시켜 주며, 특히 대안아경의 정수만을 가려 낸 경전으로 대학입시 자녀를 둔 가정, 사업번창을 기원하시는 가정, 집안에 살재가 있으신 불자님 가정에 꼭 필요한 소장품입니다.

- 크기 : 27.5cm×11cm
- 재질 : 24K 순금도금
- 보급특가 : 170,000원
- 사찰단위 단체주문 환영
- 공로해, 감사패 대응으로 좋습니다.

금동반야심경 팔만대장경판 (국보 제32호) 축소판 ▲

금동신묘장구대다라니

금동신묘장구대다라니를 소장하시면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고, 무량수마와 변제(變才)·이치를 분명하게 판단하여 분별하는 재주를 얻으며, 모든 구하는 바를 얻게 되고, 여자가 남자로 나기를 원한다면 남자로 태어나고, 일체 중죄와 삼보를 훼손한 죄도 소멸된다.

- 크기 : 지름 10cm
- 재질 : 24K 순금도금
- 보급특가 : 90,000원

생전예수재의 공덕 (법공양판)

생전예수재의 의미, 유래, 공덕, 전생의 빛과 광, 예수재의 의식, 저승을 다녀 온 사람들의 이야기 등을 요약해서 수록하여 예수재 행사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200부 이상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 사륙배판, 80페이지
- 정가 2,500원

생전예수재 용품

내용물 : 함할소 · 금강경 · 만관 · 금강경찬 · 철마 · 천수다라니 · 돈다라니 · 소다라니 · 탐다라니 · 개팔천 수생경 · 지전

예수재 행사 장임등

※ 일반 행사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행드백에 쓰~속 들어가세요!

법공양으로 좋은 한장본 불서

포켓용

◆ 크기 : 10cm×17.7cm

· 관세음보살보문품 90페이지 3,000원	· 천수·반야심경 100페이지 3,500원
· 예불독송경 89페이지 3,000원	· 천수·관음경 110페이지 3,500원
· 불설아미타경 86페이지 3,000원	· 무상법문집(영가전) 110페이지 3,500원
· 예불대참회문 86페이지 3,000원	· 천수·금강경 166페이지 4,000원
· 천지팔왕신주경 94페이지 3,000원	· 금강·아미타경 162페이지 4,000원
· 지장보살예찬문 78페이지 3,000원	· 지장보살본원경(상) 163페이지 4,000원
· 금강반야바라밀경 144페이지 3,500원	· 지장보살본원경(하) 175페이지 4,000원
· 부모은중경 102페이지 3,500원	· 지장참회예문 186페이지 4,000원
· 약사여래본원경 104페이지 3,500원	· 관음참회예문 190페이지 4,000원

전권(18권)을 구입하시면 20% 할인해 드립니다. (63,000원→50,000원)